

‘기생충’ 주무대 전주 ‘박사장 저택’ 복원한다

철거된 정원·저택 전주종합촬영소 세트장에 위치 마련
전북도·전주시, 건립 비용·부지 제공 관광상품화 검토

전주에서 전체 분량의 60%를 촬영, ‘오스카 4관왕’을 거머쥔 영화 ‘기생충’의 세트장이 복원된다.
16일 전북도와 전주시에 따르면 도와시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주요 장면이 촬영된 박 사장(배우 이선균) 저택 등 전주영화종합촬영소에 설치됐던 세트장을 복원해 관광상품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기생충’ 전체 77회차 가운데 46차(59.7%)가 전주영화종합촬영소에서 촬영됐다. 기택 가족의 신분 상승 욕망을 부추기고 영화 클라이맥스를 이끈 배경인 저택과 정원은 모두 야외촬영장에 조성됐다. 저택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등은 실내 촬영장에 세트가 구성됐다.

이 세트장들은 현재 모두 철거된 상태다. 세트장은 영화를 봐야만 알 수 있는 숨겨진 이야기가 새어나갈 수 있어 촬영이 끝나면 철거된다. 봉 감독도 공간이 노출

되는 것 자체로 ‘스포일러’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건물 철거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전북도와 전주시는 ‘기생충’ 열풍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자 세트장 복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전주영화종합촬영소의 야외세트장에 설치됐던 박사장의 저택이 첫번째로 거론된다.

양 기관은 제작사인 ㈜바른손이엔에이와 투자사 CJ E&M의 동의 과정과 저작권 문제 등이 해소되면 복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영화에 비추진 세트장 전체가 저작권과 연결된다. 이 문제를 넘어서면 전주시는 부지 제공, 전북도는 건물 건립비용 등을 부담하는 선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영화에서 최후의 접점이 떨어진 정원과 중심 스토리가 전개된 박사장 저택이 복원돼 방문객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되는 것이다.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내 박 사장 저택 세트장에서 영화 ‘기생충’을 촬영하고 있다.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제공〉

영화 기생충의 파장은 단순히 세트장 복원을 넘어 전북 영화계 전체로 확산하고 있다. 전북도는 현재 휴업 중인 부안영상테마파크 등 영화 관련 인프라에 대한 시설개선과 지원방안을 예고했다.

수면 아래 잠들었던 세만금 영상테마파크 조성도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간 세만

금의 관광·레저용지에 100만㎡ 규모의 영상테마파크 조성을 구상했다. 영화촬영과 영화 편의시설, 영화와 관련된 관람·체험·놀이시설을 갖춘 영상테마파크를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주=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parkks@



화순군은 최근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산림·농정·환경 부서 합동 단속에 들어갔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 불법소각 방지 산불 예방 합동단속

화순군은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산림·농정·환경부서가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고온 현상, 낮은 강수량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영농 부산물·폐비닐·생활 쓰레기 불법소각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산불 예방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화순군은 이날 들어 산림·농정·환경부서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합동점검단은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 위험 요소 발견 시 소각방지 홍보, 계도·단속 활동을 함께 펼

치고 있다. 지난 11일 산불 발생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 위해 산림·농정·환경부서와 읍면 산업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담당자 긴급회의를 열었다.

유명기 화순군 산림산업과장은 “산불 예방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초기 대응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업 부산물 소각 금지, 진화대원 순찰 활동 강화, 마을 홍보·계도 방송 시행 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제2의 봉준호’ 키운다

순창군, ‘영화캠프’ 진행 이어 영화인 꿈 청소년 지원 박차

순창군이 영화인의 꿈을 가진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나서 ‘제2의 봉준호’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

16일 순창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역 학생들이 관내 곳곳을 무대로 영상미디어 창작을 통해 장래 진로에 대해 미리 경험

할 수 있도록 영화제작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청소년 영화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여균동 영화감독을 총괄로 촬영부터 녹음, 편집 등 각 분야 전문 감독의 지도 아래 시나리오 쓰기, 촬영기법, 조명실습, 녹음 기초, 촬영장소 선정, 소품

제작 등 영화 현장 전반에 대해 배워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

지난해 7월 제1기 영화 캠프를 시작한 관내 중·고등학생 11명이 단편영화 ‘무슨 생각하고 사니?’를 제작, 지난해 제13회 전북청소년영화제에서 고등부 금상을 받았다.

특히 지난 1기 캠프에 참여한 두 학생이 2020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에서 한국영상대학교 음향제작과와 영화영상과에 합격해 현재 꿈을 향해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

다.

지난 1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관내 15명의 중·고등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영화 캠프 2기가 진행된다. 참여 학생들은 순창의 겨울을 배경으로 영상 제작에 몰두하고 있다.

영화 캠프는 전주영화제작소, 전주정보산업문화진흥원 견학을 끝으로 이달 말까지 진행하고, 3월 초 상영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kwangju.co.kr

한옥마을 ‘상생 나비효과’ ...전주에 ‘임대료 인하’ 확산

‘코로나19’ 함께 극복하자
모래내시장·대학교 등 동참

전주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상가 임대료 인하 움직임이 전주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임대료 인하 결정은 전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김승수 시장과 전동시장·구도심·대학교 등 곳곳의 상권 건물주 40여명은 시장 회의실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선언식’을 했다.

이날 선언식에 참여한 주요 상권은 모래내시장과 전북대학교 대학로, 풍남문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동시장·구도심·대학교 등 곳곳의 상권 건물주 40여명은 지난 14일 시청 회의실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선언식’을 했다. 〈전주시 제공〉

상점가, 중앙동, 중화산동, 금암동, 우아동, 평화동, 삼천동, 인후동, 송천동, 조촌동, 여의동, 혁신동 등이다.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건물주들도 참여했다. 이들 상가의 건물주들은 대부분 임대료의 10% 이상을 인하하기로 했다.

일부 건물주는 상가 규모와 부동산 가격 등 각각의 상황을 고려해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 이상까지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상생협력 선언식에 참여한 은모(전주시 중화산동)씨는 “최근 코로나19로 고통을 받는 세입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며 “월세 10% 인하가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세입자와 한마음 한뜻으로 뚝뚝 뭉쳐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12일에는 연간 1000만명이 방문하는 전주의 대표적 관광지인 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에 이어 주요 상권의 건물주들이 임대료 인하 등에 동참하면서 향후 나비효과를 일으켜 ‘상생 협력’이 전주 전역은 물론 전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parkks@

여주시 ‘화요 야간 행복민원실’ 호응

여주시가 화요일 야간에 운영하는 행복민원실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화요 야간 행복민원실은 평일 낮에 시청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민원실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처리 가능한 민원은 7개 분야 18종이며, 지난해 총 49회 1196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특히, 호응이 가장 좋은 업무는 여권 접수 및 발급으로, 여권은 외교부에서 지정한 창구의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

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주시는 민원공무원 친절·역량 강화 교육, 편리한 민원실 환경 조성 등을 통해 민원행정 친절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인 대통령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여주시 관계자는 “화요 야간 행복민원실을 지속 운영하고 처리 가능한 민원을 확대 발굴해 시민 중심 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형화기자 chkim@kwangju.co.kr

고창군 로컬JOB센터, 올해 300명 취업 지원

고창군은 로컬JOB센터가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2억 8200만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창군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고창군로컬JOB센터 운영사업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로컬JOB센터를 지역거점 일자리센터로 만들어가기로 했다.

센터는 올해 300명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800명에게는 구직신청을 할 수 있게 안내하고, 800명에게는 일

자리를 소개한다.

센터는 고인돌일자리창출단과 기업·기관 일자리창출협약, 일자리 서포터스 운영, 농어촌 복합도시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취업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 만족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4월 문을 연 고창로컬JOB센터는 그동안 62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1160명에게 일자리를 소개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SAMSUNG 삼성화재
H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KOREAN K
SGI서울보증
AXA AXA
AIG
The K 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